

전주시, 저상버스 맞춤형 승강장 확충

올해 9000만원 투입해 남부시장·국민연금공단 등 교통수요 맞춘 주요 승강장 6곳 개선 추진

전주시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승강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9000만 원을 투입해 남부시장과 국민연금공단 승강장 등 시내 주요 승강장 6곳을 저상버스 맞춤형 승강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객이 많고, 교통약자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병원·시장·공공기관 등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지난 상반기 중 남부시장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 승강장을 교체할 예정이다.

나머지 4곳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된 뒤 하반기 중 추후 개편할 예정이다.

새로 조성·교체되는 승강장은 기존 개방형 승강장의 불편을 보완한 조합형 승강장으로 개선된다. 비와 바람, 폭염 등 기상 영향을 줄이면서도 개방감을 확보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회전



전주시는 올해 총 9000만 원을 투입해 시내 주요 승강장 6곳을 저상버스 맞춤형 승강장으로 개선한다. 사진은 설치 완료한 남부시장 승강장.

반경을 고려한 공간 확보와 장애인 알림등, 유도·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함께 확충된다.

시는 국민연금공단 승강장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인근 공공기관 이용객의 대중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인근은 혁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시는 승강장 시설 개선을 통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중심도로 금융기관 집적화가 추

진되고,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혁신도시 내 출퇴근과 방문객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에 발맞춰 승강장 시설 개선과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기능을 연계해 혁신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과 이전기관 종사자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강장 확충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일반 시민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미영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저상버스 승강장 확충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변화하는 교통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장난 선풍기 수리·재사용 돕는다

전주시생활용센터 다시봄, 여름철 '선풍기 상담소' 정기 운영

전주시생활용센터 다시봄은 여름철 고장 난 선풍기의 수리와 재사용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선풍기 상담소'를 정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여하게 된다.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리 기술자가 생활가전 수리 경험을 시민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싶다는 자원봉사 참여 의사를 밝혔고, 생활용센터 다시봄도 수리와 재사용 문화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선풍기 상담소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

다시봄은 이번 여름철 정기 상담소 운영에 이어 오는 9월과 10월에는 지역 현장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선풍기 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청 북측에 대규모 노상주차장 조성

전주시, 8월까지 84면 신규 조성 추진... 10월부터 유료주차장 운영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인근에 대규모 노상주차장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북문과 맞닿은 마전들로(완산구 효자동3가 일원)에 노상주차장 84면을 조성해 오는 10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날 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 준공 이후에는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서부신시가지 일대는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시는 만성적인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효자동2가 공한지에 312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무로 개발한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청 북문 마전들로의 도로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총사업비 6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마전들로 전북



특별자치도청 북1·2문 진출입 구간에 84면 규모의 유료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차선 도색과 함께 CCTV를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시는 오는 8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범운영에 돌입해 시민들의 편의 및 주차장 이용도 등을 확인하고, 이후 10월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 요금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까지는 700원, 이후에는 15분마다 350원이 추가되는 요금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인근 서부신시가지 다른 유료 공영주차장(최초 30분, 900원)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시는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및 부지 유휴 공간을 발굴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주시, '인구혁신 프로젝트' 공모전 접수

전주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6 인구혁신 프로젝트' 시민정책

제안 공모전을 통해 인구정책 제안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생·양육(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청년 정착 및 자립기반 도시) △생활인구(생활인구 20만 프로젝트) △외국인(외국인이 정착하는 도시) △혁신(AI 연계 인

구정책 플랫폼, 기타 인구 관련 혁신 제안)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전주시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는 9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득호 한국금융인재개발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금융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금융 아카데미' 성공 추진 협력

전주시-전북신용보증재단-한국금융인재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시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

시는 9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득호 한국금융인재개발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금융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응과 지역 금융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3개 기관은 △교육

기획 및 과정 개발 △교육 운영 추진 △사업 홍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각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매칭해, 올 하반기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께 금융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주시 거주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금융의 이해 △소득·소비 관리 △투자 기초 △주식 용어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의회의회 MUJU-GUN COUNCIL